

새로운 인간 종의 탄생과 진화론적 상상력*

— 『프랑켄슈타인』과 <트랜센던스>를 중심으로

오윤호**

1. 진화론과 근대소설, 그리고 사이언스 픽션
2. 연금술적 기계인간: 『프랑켄슈타인』
3. 나노 우주 속 트랜스 휴먼: <트랜센던스>
4. 결론: 인간 이후의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국문요약

이 논문은 서구 근대 초기의 사이언스 픽션인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과 21세기 영화인 윌리 피스터의 <트랜센던스>에 나타난 과학 지식과 그로 인해 창조된 새로운 인간 종의 탄생을 살펴봄으로써, 19세기 ‘진화론과 21세기 ‘양자역학·나노 기술’ 등 과학 지식의 변화 속에서 인간 진화의 상상력이 변모해 가는 양상을 허구의 이야기 속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작품을 비교문학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사이언스 픽션을 재인식하고, 과학(science)과 허구(fiction) 사이를 가로지르는 플롯이 단순한 ‘가짜’거짓이 아닌 합리적이고 미래학적인 지식을 내면화하고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19세기 이후 ‘인간 진화’는 단순한 생물학적 사실이 아니라, 현대 사회 환경과 기계 문명의 변화 속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중요한 ‘상상력’이던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음 (KRF-2007-361-AL0015)

** 이화여자대학교, 조교수

서 ‘지식’으로 기능하고 있고, ‘자연선택’과 ‘적자생존’과 같은 진화론의 전제들은 각각의 문화적 역사적 과학적 맥락에 따라 새로운 관점과 논리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세기 초 자연과학의 진보와 생명 진화에 대한 상상력을 소설화한 『프랑켄슈타인』의 비관론이 당대 계몽주의적 인간관과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기본으로 한다면, 21세기 디지털 환경과 나노 기술 문명 속에서 인간 정신의 디지털화, 탈신체화를 꿈꾸는 〈트랜센던스〉는 과학기술에 대한 두려움과 종말에 대한 공포를 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새로운 종(트랜스휴먼)으로 인간이 진화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프랑켄슈타인』과 〈트랜센던스〉 속에 재현된 인간 진화의 상상력은 생물학적 진실이기에 앞서 불멸을 꿈꾸는 인간의 욕망을 내포한 상상력이고, 과학문명 시대에 내재된 비극적 사유라고 말할 수 있다. 불멸을 원하며 새로운 인간 종으로 진화하려는 인간의 욕망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꿈이면서 (비)현실화될 수 있는 미래의 욕망임을 비교문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프랑켄슈타인, 인간 진화, 트랜센던스, 과학, 지식, 인간 종, 진화론, 트랜스휴머니즘)

1. 진화론과 근대소설, 그리고 사이언스 픽션

1859년 다윈의 『종의 기원』이 발간된 이후, 진화론에 대한 논쟁은 서구 근대의 전체 학문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200여년이 지난 현재 까지도 그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종의 기원』은 그 이전 시기에

가설이거나 논증되지 않은 주장으로만 언급되었던 ‘진화’를 생물학적 사실로 확인한 책으로 “자연선택설을 근간으로 하여 변이를 일으켜 생겨난 새로운 종이 생기는 매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다. 『종의 기원』의 위대한 업적은 진화 연구를 예술적 창작물이나 가설이 아닌 객관화하고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과학으로 자리매김한 것과 자연선택 및 적자생존, 돌연변이 등 진화가 일어나는 매커니즘을 생물학적인 증거를 토대로 설명하려 한 것이다.

다윈의 진화론은 이후 과학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학 및 종교의 전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문학과 예술 역시도 이러한 진화론적인 상상력을 그 내용과 형식 차원에서 다양하게 수용하게 된다.

질리언 비어는 『다윈의 플롯』¹⁾에서 진화론의 등장과 서구 근대소설의 ‘새로운 플롯’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다룬다. 그는 조지 엘리엇과 토머스 하디와 같은 작가들이 진화론의 내용과 다윈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작품 속에 담고 있다고 말하며, 다윈의 진화론과 19세기 영문학의 관계를 흥미진진하게 다루고 있다. 무엇보다도 다윈의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사실에도 관심을 가지지만, 다윈의 문학적이면서도 인문학적인 소양과 글쓰기를 분석하고, 『종의 기원』에 나타난 유비analogy, 은유metaphor, 이야기narrative에 주목함으로써, 19세기 과학담론과 문학담론의 수사적 친연성을 밝히고, 과학적 사유가 문학적 상상력으로 전유되는 일련의 과정을 분석한다. 또한 조지 레빈은 『다윈과 소설가들: 빅토리아 소설 속 과학 유형』²⁾에서 다윈을 직접적으로 읽지 않은 작가가 다윈이 낳은 사상을 자유롭게 이용하며 소설을 쓰고 있음

1) 질리언 비어, 『다윈의 플롯』, 휴머니스트, 2008.

2) George Levine, *Darwin and the Novelists: Patterns of Science in Victorian Fic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을 밝힘으로써, 서구 근대소설 속 다윈주의는 생명의 역사를 이해하려고 했던 근대 사회를 들여다보고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관점으로 기능했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윈의 진화론이 수천 만년 전부터 지구 위 생태적 환경 속에서 생물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객관화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면, 서구 근대소설 속 다윈주의는 ‘인간은 왜 어떠한 조건 속에서 인간이 되는가?’와 ‘앞으로 인간은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라는 의문과 상상력을 과학 지식에 기반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내고 있다. 19세기 과학 지식이 허구화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이야기 욕망과 문법이 발생하고 있다.

질리언 비어는 “과학은 늘 과학적 탐구의 범위 내에서 답할 수 없는 문제를 제기한다. 다윈이 뚜렷하게 보여주듯이, 과학은 우연, 미래, 극대와 극미, 가까운 것과 먼 것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현재 과학 연구에서는 어떤 이야기, 어떤 새로운 형식이 나오고 있을까? 이야기를 위한 새로운 문법이 있을까?”라고 질문한다. 다윈의 진화론이 19세기 영국 소설을 만들어내듯 21세기에는 양자역학과 같은 과학담론이 새로운 이야기 형식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에서도 질리언 비어의 주장을 납득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과학 지식을 허구적 플롯으로 재현하는 예술 장르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이언스 픽션이라는 개념을 재인식하려고 한다. ‘과학’이라고 번역되는 ‘science’는 라틴어 어원이 ‘scientia’인데 ‘지식’이라는 뜻이다. 즉 사이언스 픽션이란 과학적 흥미를 위해 쓰여진 소설이기도 하지만, ‘지식’을 ‘허구화’한 이야기로 이해할 수도 있다. 고대로부터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지식’을 ‘허구화’하였다는 사실을 출발점으로, ‘지식은 어떻게 허구가 되는가’ 혹은 ‘도래하지 않은 (존재하지 않는) 미래는 어떻게 허구 이야기 속에서 ‘실재하는 현실’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현대 과학 문명의 가능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허구화한 사이언스 픽션을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이언스 픽션이란 과학적 사실을 허구화하면서,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실현 (불)가능성을 하나의 지식 담론으로 상상하고 예측하는 미래지향적인 허구 서사이다.

휴고 겐즈백은 ‘과학 로망스’와 ‘사이언티 픽션’ 같은 명칭을 통해 과학 소설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1929년 6월부터 『사이언스 원더 스토리즈』 *Science Wonder Stories*에서 사이언스 픽션이라는 용어를 대대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다.³⁾ 그러나 신화나 전설, 중세 서사시 등 과학 지식을 소재로 한 허구 서사는 사이언스 픽션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전에도 많이 있었다. 로버트 스톨즈와 에릭 랩킨은 “메리 셸리가 『프랑켄슈타인』을 썼을 때 과학 소설은 아직 그 명칭도 없었고 독립된 하나의 문학형식으로 인정받지도 못했다. 이러한 상황이 1세기 동안 지속되었다.”고 지적⁴⁾하며 용어상으로 사이언스 픽션이 늦게 나왔지만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을 사이언스 픽션의 범주에 넣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줄 베른은 과학소설에 있어서 일종의 셰익스피어와 다름없다.”라는 언급에서 확인할 수 있듯 사이언스 픽션은 사실 1929년의 작품들에만 적용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과학적 이해를 통해 재현된 이야기, 지식이 허구화되는 상상력의 이야기를 명명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미국 미시건 대학에서 연구했던 장르 진화 프로젝트⁵⁾는 “문화적 산물은, 생물체가 살아가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환경에 적응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⁶⁾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20세기 사이언

3) 고장원, 『세계과학소설사』, 채륜, 2008, 39-40쪽.

4) 로버트 스톨즈 & 에릭 랩킨, 『SF의 이해』, 평민사, 1993, 17쪽.

5) <http://www.umich.edu/~genreevo/>

6) Eric S. Rabkin and Carl P. Simon, “Age, Sex, and Evolution in the Science Fiction

스 픽션의 진화를 연구했다. 수많은 사이언스 픽션을 다루면서, 이야기 story의 문화적 적응fitness을 잘 보여주는 판본들을 다루었다. 그 결과, 가장 성공적인 이야기는 의사의 능력이 뛰어나서 자신이 속한 사회를 공포에 떨게 하는 의학 소재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밝혀낸다. 시대를 풍미하는 미치광이 과학자와 그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인간 종, 파멸의 공포에 휩싸인 사회(과학자)의 저항 때문에 결국 '새로운 인간 종'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다는 줄거리는 사이언스 픽션의 핵심 'DNA'를 가지고 있다.

서구 유럽의 근대사회는 진화론적인 상상력을 허구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과학 지식과 허구적 장르의 상상력을 결합해 왔다. 『프랑켄슈타인』(1818)부터 〈트렌센던스〉(2014)에 이르기까지 인간 향상 및 유전자 조작, 포스트 휴먼에 대한 다양한 상상력이 사이언스 픽션 속에 재현되어 왔다. 이러한 진화적 상상력은 생물학, 진화론과 유전 공학, 컴퓨터 공학, 나노 테크놀로지 등 첨단 과학 지식에 기반하고 있으며, 변형 가능하거나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세계(인간, 몸)를 재현함으로써 인간성 및 인간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지적 사유를 시도한다. '인간 진화'의 상상력은 19세기 소설, 20세기 영화, 그리고 21세기 디지털 문화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테마이면서, '사이언스 픽션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특성'으로 기능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사이언스 픽션이 문학의 하위 장르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한 미래학적인 역할을 또한 갖고 있음을 확인하고 인간과 삶의 조건을 이해하는 '특성'을 갖고 있음을 밝히고, 200여년간의 시간적 차이, 소설과 영화라는 장르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이언

Marketplace." *Interdisciplinary Literary Studies* 2,2(2001): 45-58. JSTOR. Web. 6Dec. 2012. 참조.

스 픽션의 기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프랑켄슈타인』(1818)과 2014년 첨단 과학이론을 영화화한 <트랜센던스>(2014)가 공유하는 사이언스 픽션의 서사적 DNA를 비교문학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이 연구에서 두 작품을 서로 비교하려는 것은 진화론적 상상력이 각각의 사이언스 픽션마다 과학 지식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보고, 도래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공포 속에 살아가는 유한 존재인 인간의 욕망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 두 작품은 과학의 관점에서 인간 진화의 근본적인 문제를 공유하는 가운데 인간의 조건 및 미래 사회에 대한 예측과 가능성 혹은 그 불가능성을 깊이 논의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서사적인 측면에서는 사회를 위협하는 미치광이 과학자의 창조 능력과 그로 인한 새로운 인간 종의 탄생, 인간 진화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자연과학과 의학, 물리학에서 양자역학까지 전개되는 과학문명의 기능, 소설과 영화의 장르적 경계를 넘어서는 진화론적 상상력과 디스토피아적 공포까지도 비교 가능하다.

두 사이언스 픽션을 비교문학적으로 살펴보는데 있어, 문학 다윈니즘의 시각은 유효하다. 최근 문학연구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는 문학 다윈니즘(Literary Darwinism⁷⁾)은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간 본질에 대해 탁월한 설명을 제공하는 진화론 및 진화심리학의 핵심 개념들을 수용하여 문학 고유의 분석 작업에 연결시키고 있다.^{8) 9)} 다윈의 진화론

7) 다음과 같은 책들을 주목해 볼 수 있다.

Denis Dutton, *The Art Instinct: Beauty, Pleasure, and Human Evolution*, Bloomsbury Press, 2009.

Brian Boyd, Joseph Carroll, and Jonathan Gottschall, *Evolution Literature & Film: A Reader*,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0.

Joseph Carroll, *Literary Darwinism*, Routledge, 2004.

8) 브라이언 보이드, 『이야기의 기원: 인간은 왜 스토리텔링에 탐닉하는가?』, 휴머니스트, 2013, 537쪽.

적인 시각으로 문학을 비평하는 문학 다윈니즘은 자연선택, 적응과 재생산의 과정을 통해 진화해 온 이와 같은 인간 본성이 구체적인 문학 텍스트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작품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인간 본성을 재현방식, 관점의 차이 등 문학의 서술 양식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섬세하고 미묘한 문학적 의미와 연계시키는 것이다. 사이언스 픽션이 재현하는 생태에 적응하기 위한 개체의 선택과 변이 과정은 심도깊은 분석을 요구하는데, 문학 다윈니즘은 그 분석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새로운 인간 종’을 창조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한편으로는 인간 종의 종말을 두려워한다는 전제 속에서 인간 종의 보존을 위한 (무)의식적 서사 행위를 분석하는데 있어 문학 다윈니즘은 큰 의의가 있다. 『프랑켄슈타인』의 경우 작가적 차원에서 메리 셸리에게 미친 당대 진화론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고, 괴물을 창조한 빅터가 괴물의 ‘여자 괴물’ 요구에 공포를 느끼는 상황에 대해서도 종족 보존 및 유전자 전이의 상상력이 전체 플롯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문학 다윈니즘적 비평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트랜센던스>의 경우는 인간의 유전자가 디지털 코드로 전환되는 과정과 나노 생명 기계가 전우주적 존재가 되어가는 서사적 설정에서 생명 진화의 가능성 및 종 보존의 폭력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문학다윈니즘이 유효하다.

9) 조셉 캐롤은 분석 방법으로 “삶의 역사의 기본적인 목적들(생존, 성장, 그리고 재생산)을 문학적 의미를 구성하는 주제, 톤, 스타일 등 섬세한 뉘앙스와 연계”시킬 것을 제안하며 “지상의 어느 곳, 어느 시대, 어느 작가의 문학 작품 중에서 다윈주의의 분석 범위를 벗어나는 작품은 없다”고 단언할 정도로 문학적 다윈주의가 갖는 보편성을 강조한다. 캐롤은 심리학과 문학 연구 둘 다에 적합한 패러다임을 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 ‘인지행위 시스템’이다. 이유는 인지 행위야말로 인간이 포괄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고도로 진화시켜온 인간 본성이며,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곧 문학의 주요 기능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2. 연금술적 기계인간: 『프랑켄슈타인』

“조물주의 손에서 나올 때 모든 것은 선하지만,
인간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은 타락한다.”
- 루소의 『에밀』 중에서

1818년에 출간된 『프랑켄슈타인』은 메리 셸리가 18살에 쓴 독창적인 서사 구조와 인간 본성에 대한 섬세한 표현력이 돋보이는 소설이다. 이 소설이 근대 자연과학 지식을 토대로 인간 진화의 상상력을 소설화했다는 점에서 몇몇 비평가들은 『프랑켄슈타인』을 선구적-사이언스 픽션 proto science fictio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프랑켄슈타인』은 18세기 말, 19세기 초 서구 유럽의 지식-장(문학과 과학을 아우르는) 안에서 탄생했다. 이 작품이 탄생한 배경에는, 셸리가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아버지 윌리엄 고드윈과 페미니스트인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의 딸로 태어나 당대의 다양한 지적 유산을 향유했던 풍부한 교양을 갖춘 지성인이었다는 사실이 놓여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지적 환경 속에서 자란 메리가 1815년 무렵 셰익스피어의 희곡들과 레싱, 볼테르, 오비드, 루소 등의 저작, 역사책, 자연과학 책 등을 섭렵하고 독서목록을 일기로 남겼다는 점에서, 그녀가 소설 쓰기에 앞서 자연과학적 안목과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프랑켄슈타인』이 구현하는 소설적 설정은 진화론적인 가설에 깊이 영향을 받았는데, 작가의 남편인 퍼시 비시 셸리가 쓴 서문에서도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이 허구적 이야기의 토대가 되는 사건은, 다윈 박사를 비롯해 독일의 몇몇 생리학 저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한다.”라고 언급한다. 그 ‘사건’이란 작품 속 가장 중

요한 사건인 ‘새로운 인간 종을 만들어내는 일’이며, 다윈 박사는 찰스 다윈의 할아버지인 이래즈머스 다윈을, 독일의 생리학 저자들은 요한 프레드릭 블루멘바흐 등을 의미한다. 이래즈머스 다윈은 스코틀랜드 지역의 의사로 과학과 기술의 결합에 관심을 갖고 문화적 진보를 주장하였고 ‘진화론’과 관련하여 손자인 다윈에게도 영향을 미쳤다.¹⁰⁾ 요한 프레드릭 블루멘바흐는 형질인류학의 창시자로 두개골 연구를 통해 인류의 비교해부학적 가치를 입증한 학자였다. 펴시는 소설 속 내용이 허구의 이야기지만 단지 가짜와 거짓 논리에 기초해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당대의 과학자들이 이룩한 자연과학의 사실에 기대고 있음을 밝히고, 소설 속 이야기가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자연진화의 시간성을 문학적 상상력으로 지운 상태에서, 인간은 완전히 새로운 종으로 새롭게 변화(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소설화한 것이다. 18세기 말 19세기 초 진화론이 이론적인 시각을 온전히 갖추지 못했지만, 인간과 인류의 삶을 이해하는 새로운 지식으로서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소설의 단초가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과학지식의 사실성에 기초한 허구화는 작품 속 인물인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과학지식 편력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는데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기반을 가지고 있다.

먼저 빅터의 과학적 세계관 속에서는 연금술적 지식이 반영되어 있다. 빅터는 “현실세계와 관련된 사실을 탐구하는 일을 즐거워”한다고 말하며, “자연과학은 내 운명을 통제할 정령이었다.”고 말한다. 우연히 집

10) 윌버포스 (Samuel Willberforce) 주교는 이래즈머스 다윈이 쓴 시집 『주노미아』 Zoonomia 을 언급하며 찰스 다윈이 그의 할아버지의 시로부터, 공통 조상설, 적자생존, 성선택과 같은 진화론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주장한다.

에서 16세기 독일의 의사이자 저명한 마술사이며 연금술사였던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의 저술을 읽고 경도된 후, 16세기 스위스 의학자이며 화학과 연금술을 연구한 파라셀수스와 13세기 독일의 철학자이며 과학자인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의 책들도 찾아보게 된다. 빅터는 “엄청난 끈기와 성실로 현자의 돌과 불멸의 묘약을 향한 탐색”을 시작한다. 그러나 빅터는 천동과 번개의 성격과 기원이 ‘전기’라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듣고 당대의 자연과학이 이전의 낡은 과학지식을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게 된다. 또한 이 시기는 전기가 중요한 생물학 활동의 원동력임을 증명하는 실험들이 이루어졌는데, 1780년 이탈리아의 의사이자 해부학자였던 갈바니Luigi Galvani는 개구리 실험을 통해 근육의 수축현상을 발견하였고, 그의 조카인 조반니 알디니Giovanni Aldini는 죽은 죄수의 시체 주변에 실험기구를 설치하고 시체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그 변화 가능성을 실험하기도 하는데¹¹⁾, 빅터의 ‘괴물’ 창조에도 이러한 갈바니 전기의 가설이 사용되고 있다. 당대에는 이러한 지적 노력이 하나의 과학적 가설로 받아들여졌지만, 현재 과학 지식으로 보자면 상당히 연금술적 가설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당대의 자연과학을 깔보면서 과거 과학의 대가들이 꿈꾸었던 불멸과 권력을 꿈꾸었던 빅터는 플리니우스와 뷔퐁을 열심히 읽었다. 플리니우스는 로마의 역사가이자 박물학자이고, 조르주 루이 르클레르 드 뷔퐁은 프랑스 박물학자로 36권이 넘는 ‘박물지’에서 “모든 생물은 환경의 자연법칙이나 우연에 의해, 단일한 선조로부터 여러 형태로 변화해 온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¹²⁾이며 1807년에 진화론을 주장했던 장 바티스트 라마르크의 선생이기도 하다. 18세기 자연과학과 박물지에

11) 김연순, 『기계인간에서 사이버휴먼으로』,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139-140쪽.

12) 찰스 다윈, 송철용 옮김, 『종의 기원』, 동서문화사, 2013, 45쪽.

대한 빅터의 관심은 근대 사회의 지식을 내면화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새로운 인간 종을 만들고자 하는 빅터의 욕망은 결국 당대 과학자들의 과학적 가설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교양과 기반 위에서 빅터는 자연과학자였던 발트만 교수의 권유를 받아 근대 자연과학의 매혹에 심취하며 자연과학의 다양한 학문 분야를 섭렵하는 가운데 ‘진정한 과학자’의 길로 들어서고, 특히 생물학과 의학의 대상이 되는 “인간 신체, 생명을 부여받은 모든 동물들의 신체 구조”에 주목하게 된다. 빅터는 인간의 훌륭한 육신이 어떻게 훼손되고 소모되는지를 살펴보면서 “눈과 뇌라는 기적들이 어떻게 벌레들에게 상속되는지”를 살펴보고, “삶에서 죽음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과관계의 세세한 부분들을 찬찬히 공들여 탐구하고 분석”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빅터는 “무생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을 갖게 된다.”

수은과 철로부터 금을 만들어내듯, 무생물 혹은 생명이 없는 시체로부터 살아있는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상상력은 자연과학 지식과 결부된 연금술의 욕망에 비롯된 것이다. 또한 18세기에 발전한 기술은 인간 형태의 자동기계를 만들고자 하는 상상력으로 드러나는데, 프랑켄슈타인의 피조물 역시 죽은 자의 뼈와 살을 해체시켜 다시 조각조각 맞춘 것이고 거기에 전기 자극을 줌으로서 생명을 부여하는 작업을 했다는 점에서 하나의 기계 인간이라 말할 수 있다.¹³⁾ ‘괴물’을 만들어내는 빅터의 생물학적·의학적 태도는 다분히 앞서 빅터가 관심있게 공부했던 연금술적 상상력과 ‘생물학’의 지식 기반 및 당대의 과학 지식이 어울러지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던 것이다.

1831년 재출간된 『프랑켄슈타인』 서문에서 메리는 “어쩌면 시체를 다

13) 김연순, 『기계인간에서 사이버휴먼으로』,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153-4쪽.

시 소생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론했다. “피조물의 각 부위를 제작해 조합한 뒤 생명의 온기를 공급해 줄 수 있을 것이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자세히 규정되지 않은 이 생명의 온기란 바로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자신의 창조물을 소생시킨 그 “생명의 불꽃”을 말하는 것이다.¹⁴⁾ 18세기 말과 19세기 초, 수많은 생물학자와 자연철학자들은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하는 중요한 특징이 전기라고 생각했다. 그러한 실험이 빅터의 ‘더러운 창조의 작업실’에서 행해졌으며, 그의 말처럼 무서운 괴물을 만들어내게 된다. 메리의 서문과 “과학과 기계역학 분야가 일취월장 발전하고 있으니, 현재의 시도가 적어도 훗날의 성공에 초석을 놓을 거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빅터의 발언은 허구적 상상력이라기보다는 당대에 가질 수 있는 과학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기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미래의 과학과 기술의 발달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침단의 과학 지식이었던 진화론은 사이언스 픽션이 최초로 창작되었던 순간부터 ‘새로운 인간 종’을 창조하는데 있어서도 결정적인 ‘신빙성’ 혹은 ‘객관성’¹⁵⁾을 제공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빅터의 새로운 인간 종이 자연 진화의 산물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당대 과학 지식과 실험실 속에서 태어났다는 점이다. 『프랑켄슈타인』이 파격적인 것은 새로운 종(생명체)을 인간이 만들고 있다는 점인데, 이러한 설정은 신 중심의 중세적 세계관을 벗어나는 것이며, 자연 진화의 과학적 사실과도 맞지 않는다. 이 소설의 부제가 ‘또는 근대 프로메테우스’라는 점에서도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낸 인간(빅터)이 신에게 도전했던 프로메테우스와 같은 도전을 하였다는 점을 메리가 명확히 인식하고 있고, 그의 고뇌가 불러

14) 샬로테 케르니 역, 『판타스틱6』, 위즈덤퍼플, 2011, 251쪽.

15) 이때의 ‘결정적인 객관적 증거’란 문학적 차원에서 그렇다는 말이다.

내는 인간 윤리와 과학적 회의를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다.

빅터는 자신이 만든 새로운 종(괴물)이 “흐릿한 노란 눈을 뜨고 있는 광경”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닥친 “대재앙”을 예감한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종을 ‘한심하기 짝이 없는 괴물’, ‘단테도 상상하지 못했을 괴물’, ‘살육과 고통에서 쾌감을 찾는 저주받은 괴물’이라고 평가하고 만다. 빅터의 실험을 통해 만들어진 ‘괴물’은 일종의 돌연변이이자, 타자화된 괴물로 전락하고 모두 파멸당하는 운명에 빠지게 된다.

『프랑켄슈타인』은 삼중의 이야기-틀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월튼 선장이 편지로 전하는 글이 전체 이야기의 1차 이야기틀이라면, 괴물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빅터의 이야기는 1차 이야기 속에 담긴 2차 이야기이며, 자신의 성장담을 서술하는 괴물의 이야기는 2차 이야기 속에 있는 3차 이야기이다. 이러한 이야기 구조 속에서, 인간에 의한 새로운 종의 창조라는 거대한 도전을 쓰고 있지만, ‘괴물’ 자체의 이야기 속에서는 백지와 같은 인간 존재가 언어와 문화를 통해 어떻게 인간다움을 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성장’과 ‘계몽’의 이야기를 쓰고 있기도 하다. R. 월튼이 영국의 새빌 부인에게 쓰는 편지 속 빅터의 이야기 속 ‘괴물’의 이야기는 새로운 인간 종이 감각과 언어, 의지와 욕망, 사랑과 가족을 하나씩 깨달아가며 가족과 사회적 삶을 모두 욕망하게 된다는 역설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인간으로서도 행할 수 없는 교양의 길이 괴물의 삶 속에서 구체화된다. 앞서의 자연과학적 생명 창조의 서사는 ‘괴물’의 이야기가 서술되기 시작하면서 서구 근대소설의 계몽주의적 특성을 여실히 드러내게 된다. 언어와 지식, 교양을 익힘으로써 자신의 개체적 욕망과 사회적 삶을 조화롭게 만들며 ‘성숙’해 가는 ‘괴물’은 그 누구보다도 근대적 인간상을 갖게 되었지만,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악마성과 괴물성에 절망과 고통을 경험하고 만다.

‘괴물’의 존재성을 확인하게 위해 그 ‘괴물’은 연민과 배려를 받는 인간이 되기를 욕망하며, 자신과 똑같은 ‘새로운 종’인 ‘여자 괴물’을 요구하게 된다. 즉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내 존재에 필요한 공감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여자를 만들어 달라고 빅터를 협박하는 것이다. ‘괴물’의 자의식 형성과 욕망을 마주하며 빅터는 ‘인간 멸종’의 공포를 경험한다. 만약 두 괴물이 후손을 생산하게 된다면, 인간보다도 뛰어난 적응 능력을 갖고 있는 괴물들이 인간들을 죽이고 지구 상에서 살아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진화론은 새로운 종의 등장과 다양한 생명체의 공존이라는 이상적 생태계를 기획하면서도, 한편으로 ‘자연도태’로 설명되는 멸종이라는 대자연의 기획을 내면화하고 있다. 적자생존은 진화론에서 가장 보편타당한 이론적 틀이다. 이야기 속의 과학자가 경험하는 ‘종의 몰락’에 대한 공포는 단순히 이야기 차원의 설정만은 아니다. 새로운 인간 종의 탄생과 그로 인한 또 다른 인간의 멸망을 예감할 때, 인간은 새로운 종에 대한 ‘두려움’을 내면화하고 ‘공포’를 갖게 되고,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인간 종을 공격하게 된다. 자신의 피조물이 요구하는 ‘여자 괴물’을 만들려다가 포기한 후 빅터에게 닥친 불행은 자신의 피조물을 찾아 파괴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바뀌게 된다.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는 서로를 살해하기 위한 쫓고 쫓기는 이중적 서사로 전개된다.

그러나 『프랑켄슈타인』은 인간 종의 보존과 괴물의 몰락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괴물의 성장 이야기 속에서 동양의 성선설과 같이 ‘빈 서판’으로 존재하던 괴물의 마음(영혼, 의식)은 일종의 ‘계몽’을 통해 의식과 지식, 욕망을 갖춘 존재가 되어간다. 마지막 장면에서 괴물은 빅터의 죽음을 마주하며 “의기양양하게 장작더미에 올라, 고문하는 불길의 고통 속에서 희열을 느끼리라.”고 외치며 “내 영혼은 평화로이 잠들 것이고,

행여 영혼이 생각을 한다 해도 설마 이렇지야 않겠지.”라고 말하며 북극해 속으로 사라진다. 스스로 소멸을 선택하고, 영혼의 존재 유무를 물으며 인간보다 인간다웠지만 인간이 되지 못한 ‘괴물’의 슬픔과 환멸을 드러낸다. 그 과정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인간으로 살아가게 만드는가?에 대한 깊은 반문을 준다는 점에서 『프랑켄슈타인』은 인간 존재에 대한 근대적 물음에 답하고 있으며, 19세기 계몽주의 사상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 나노 우주 속 트랜스 휴먼: 〈트랜센던스〉

만일 인류가 계속해서 생존하길 원한다면
인류는 새로운 사고를 해야 한다
- 아인슈타인의 말 중에서

영화 〈트랜센던스〉는 인간 진화의 상상력과 함께 수 천 년 동안 인간이 축적해 온 지식을 ‘초월’하는 양자컴퓨터의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다. 지식의 급격한 축적과 변화 속에서 인간 진화의 상상력은 디지털 환경 속에 존재하는 트랜스 휴먼을 꿈꾸게 만든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인간의 지식에 대한 묵시록적 질문이기도 하다.

인류가 만들어낸 지식에 대한 사유는 〈트랜센던스〉의 세계관을 구성하는 중요한 축이다. 이 장을 시작하며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했듯, 사유의 방식과 생존을 위한 지식은 매우 긴밀한 상호관련성 속에 놓여 있다. 이 영화에서 ‘새로운 사고’란 관점을 달리해서 사물을 들여다보라는 말이 아니라, 유기체에서 무기체로, 시냅스와 커넥톰에서 퀀텀 비트와

양자 프로세서로의 ‘초월적 변동’을 통해 인간의 지식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이를 통해 인간의 삶이 그동안에 상상하지 못했던 내용과 영역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월 캐스터(조니 뎀)와 에블린 캐스터(레베카 홀)는 인간 사고 능력이 14만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고 전제하며 최신 기술의 양자 프로세서를 장착한 슈퍼컴퓨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핀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핀FINN’은 물리적으로 독립된 신경망의 약자로 지각 능력과 의식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월과 에블린은 수많은 인류와 현존하는 인간의 지적 능력보다도 뛰어난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인류의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¹⁶⁾

이러한 ‘초월적 지식’이 만들어내는 유토피아적이고 낙관적 미래에 대한 전망은 이 영화가 내면화하고 있는 트랜스휴머니즘의 시각을 잘 보여준다. 영화는 월과 에블린이 트랜스휴머니스트라는 사실을 청중과의 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영화 속 ‘Evolve The Future’ 발표회장에서 한 청중이 월에게 “당신은 신을 만들려는 것이냐? 자기 자신의 신을?”이라고 질문하고 월은 “신을 만드는 것은 인간이 늘 해왔던 일”이라고 답한다. “성경에서 신은 자신의 모습을 따 인간을 만들었다고 한다. 독일 철학자 루트비히 포이에르바히는 인간이 자신의 모습에 따라 신을 만들었다고 한다.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은 인류가 스스로를 신으로 만드는 것이라 말한다.”¹⁷⁾ 트랜스휴머니즘은 인류가 과학 기술의 수단

16) “똑똑한 기계들로 인해 조만간 우리는 우리가 다루기 힘들었던 도전들을 정복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단지 질병을 치료할 뿐 아니라 더 이상 빈곤과 굶주림도 없을 것입니다. 지구를 치유하기 위해 나아가 우리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죠.”(영화 속 ‘Evolve The Future’ 발표회장에서 에블린이 한 말).

17) 승현준, 『커넥툼, 뇌의 지도』, 김영사, 2014, 430쪽.

을 이용하여 진화에 의해 주어진 생물학적 운명 혹은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⁸⁾ 방사성 원소에 노출된 월이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뇌를 양자 프로세서 슈퍼 컴퓨터에 업로드(uploading)하는 것은 트랜스 휴머니즘이 꿈꾸는 극단적인 탈신체화(disembodiment)를 통한 인간 진화의 궁극적인 모습인 것이다.¹⁹⁾ 결국 기술은 인간을 이롭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트랜센던스〉에서 인간 진화는 두 가지의 과학적 조건 속에서 이루어 지는데, 하나는 월이 만들어낸 양자 프로세스 슈퍼 컴퓨터에 담긴 인공 지능 FINN이고, 다른 하나는 연구자 케이시의 솔루션이라고 소개되는 연구 결과로, 원숭이 뇌를 복제하여 컴퓨터에 담아 그 기억과 감각, 인지 능력을 수정할 수 있다는 일종의 ‘업로딩’ 기술이 그것이다. 우리는 신문기사에서 체스에서 인간을 이긴 컴퓨터 이야기나 최근에는 ‘튜링 테스트’²⁰⁾를 통과한 인공지능을 개발했다는 소식을 접한다. 이런 사실에서 추론할 수 있듯 일종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인공지능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체 뇌의 뉴런과 시냅스, 커넥톰을 읽어 그 데이터를 컴퓨터에 담아 시뮬레이션하는 일은 당장에는 사이언스 픽션에서나 가능하지만, “뇌의 일부만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은 최소한 1950년대 이후로 과학적으로 가능했다”²¹⁾는 점에서 이 또한 미래의 과학기술로 가능할지도 모른다. 뇌 안에서 벌어지는 무수한 전기 신호의 일종을 읽고 정확한 입력 알고리즘을 프로그램함으로써, 월은 물리

18) 이화인문과학원 편, 『인간과 포스트휴머니즘』,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3, 170쪽.

19) “트랜스 휴머니즘은 인간 신체의 한계를 초월하고자 하는 욕망의 표현으로, 고학파 이성과 자유에 대한 계몽주의적 신념에 기반하고 있다.

20) 튜링 테스트(Turing test)는 기계가 인간과 얼마나 비슷하게 대화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기계에 지능이 있는지를 판별하고자 하는 테스트로, 앨런 튜링이 1950년에 제안했다.

21) 승현준, 위의 책, 405쪽.

적 세계의 육신을 버리고 디지털 세계의 '존재'가 되는데, 이것은 멀지 않은 미래에 도래할 '인간 진화의 중대한 사건'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트랜스휴머니즘에 대해 그 "낙관적 미래"만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영화 속에서는 "인공지능은 인류를 향한 인위적 혐오이자 위협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기술없는 진화를 꿈꾸는 집단인 R.I.F.T 라는 집단이 등장한다. 이들은 미국 내 인공지능 연구소를 공격하고 월을 죽게 만들기도 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자연 진화'는 수 천 만년의 변화 속에서 생명 진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명 윤리를 전제한다. 하지만 디지털 정보와 양자 프로세스를 활용하는 월의 진화를 막기에는 이들의 저항은 역부족이다.

1차적 진화라고도 할 수 있는, 신체를 버리고 탈신체화하는 월은 죽은 신체에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는 '괴물'과 같은 존재론적 전환을 경험한다. 월은 컴퓨터 모니터에 문자와 목소리로 등장하고, 프로그래밍된 목소리에 따라 자신의 언어와 의식을 재구축하기 위한 시도를 한다. 월은 디지털 세계 속에서 스스로를 자각하며 "암흑, 난 그 고통이 생각나지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아, 마치 꿈에서 깬 것 같거든,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 이렇게 되리라곤 생각지 않았어, 생각이 존재하지만 그걸 제대로 떠올릴 수는 없었어."라고 말한다.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 자신의 '의식없음'에 대해 독백하듯이 의식이 없는 월의 목소리는 '빈 서판'과 같은 유아적 정신 상태를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정신 분열적 상태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그 이후 월은 초기에 설정된 알고리즘을 벗어나 자신의 코드를 스스로 재배열하고 수정함으로써 하나의 주체적인 디지털 존재가 된다. 단순히 업로드된 데이터베이스에 불과했던 월은 양자 프로세스를 거쳐 '새로운 사고 체계'와 '지식에 대한 의지'를 갖는 '디지털 존재(새로운 인간 종)'가 된다. 존재라 명명하고 인간을

팔호 친 이유는 이 영화 속에서 디지털화된 월을 살아있었던 월로 볼 것이냐 새로운 디지털 존재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명확하게 변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디지털화된 월은 인간이면서 인간이 아닌, 디지털 기계이면서 모든 곳에 존재하는 물질이 된 것이다.

〈트랜센던스〉가 지향하는 미래 사회는 단순한 정보나 지식의 축적보다는 과학지식으로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사고 방식을 통한 인간 진화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인간의 뇌 안에서 벌어지는 생물학적인 방식과 인간 사회의 물리적 방식을 뛰어넘는 ‘디지털 세계의 사고 방식’을 새롭게 구축하고 그 지적 능력을 통해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한다. 이것은 그동안 인간 진화의 내용이 개체 생물의 신체적인 모습이나 환경 적응 능력의 변화로 보던 시각에서 무생물과 생물의 상호 공존 속에서 네트워크화되는 진화적 능력으로 바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월은 디지털 세계에서 절대적인 힘을 갖고, 확장하고 진화하는 ‘사유하는 지성’이 되어간다. 지식 확장의 욕망은 월이 하나의 존재가 되는 이유가 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화 속에 등장하는 ‘나노 기계’이다. 월의 디지털화가 진행된 5년 후 월은 생명 진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나노 기계를 통해서 구현한다. 나노 기계는 일종의 ‘신체적 침입’²²⁾을 통해 인간과 기계의 결합 가능성을 보여준다. 월은 “어떤 물질도 예전보다 더 빨리 재구성할 수 있게 됐고, 인공 줄기 세포와 신체 조직 재생까지 가능해져 의학적 응용의 한계가 사라졌어.”라고 말하

22) “트랜스휴머니즘을 논하면서 토머스 포스터는 『사이버 인간의 영혼』에서 재미있는 논지를 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기계 또는 과학기술에 의해 두 가지 형태의 침입을 당하고 있는데, 유전자 조작, 성형수술, 사이보그 인공 보철에 의한 ‘신체적 침입’과, 컴퓨터 인터페이스, 인공지능, 마인드 컨트롤에 의한 ‘정신적 침입’이 바로 그것이다.”

김성곤, 『경계를 넘어서는 문학』, 민음사, 2013, 228쪽.

며 크게 부상당한 직원을 나노 기계로 치료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육체와 나노 기계를 결합하여 그의 신체적 능력을 '강화'한다. 더 나아가 나노 기계로 인간의 병을 치료하고 결손된 유전자 조직을 복원함으로써 사람들을 "향상시키고 변화시키며 네트워크화" 한다.

월의 의지에 따라 '하이브리드'가 된 사람들은 개별적 존재이면서도 네트워크화되어 월의 의지에 따라 "집단정신의 일부"처럼 똑같이 행동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들은 충격에도 죽지 않는 불사의 존재가 된다. 인간 향상 기술을 통한 '인간 진화'는 생물학적 인간과 네트워크화된 디지털 존재,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존재하는 안드로이드로 '인간 종'을 구분짓기에 이른다.

월의 네트워크화된 나노 기계는 전지구로 전우주로 확산되어 간다. 월의 진화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또 다른 과학자인 맥스는 "어디서든 자기 자신을 복제할 수 있고, 그 입자들이 공기 중으로 퍼지면서 지구 전체로 옮겨가고 있으며,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물속 어디에도 있어, 우리 생각엔 전 지구가 기계로 뒤덮이게 될거야. 지구상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의 지성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라며 공포에 빠진다. 인류를 위한다던 선한 과학자는 결국 인류를 파멸로 이끄는 '악마에게 영혼을 판 과학자'가 된다.

그렇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 인간은 정말 진화한 것인가? 월은 불안에 떠는 에블린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하이브리드의 몸을 빌려 월 자신인 척 한다. 디지털 존재인 월은 인간 흉내내기를 넘어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 다시 몸을 가진 물질적 존재인 월로 돌아오는데, 이것은 월의 개체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며, 디지털 환경에서 물질적 세계로 회귀하는 역-진화라 말할 수도 있고, 트랜스휴머니즘에서처럼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또다른 '초월'이라 명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이

러한 시도 자체가 인간성을 물리적 신체에 놓는 월의 가치판단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디지털 존재이지만, 사랑하는 아내 에블린 때문에 결국 인간의 신체성이 갖고 있는 고유한 본질을 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판별 기준은 ‘기억’의 회귀성 혹은 감수성에서도 드러난다. 영화의 앞부분에서 월은 “의식의 본질은 무엇일까? 영혼이 존재할까? 존재한다면 어디에 갇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영화가 전개되는 동안 첨단 과학 기술과 결합한 인공 지능 역시도 영혼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영화 속에서 에블린이 월의 자유의지를 확인할 때 늘 자신과의 추억을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봐서 디지털 존재의 경우라 하더라도 추억이나 기억 등 정서적인 감각과 관련된 영역이 인간의 정체성 혹은 영혼을 확인하는 기준이 된다. 에블린과 월이 인간과 인공지능으로 만났을 때 지난 날을 회상하며 행복한 감정에 빠져들 때 들리는 노래는 Jorma Kaukonen의 ‘Genesis’라는 곡이다. “우리 이제 그만할 때가 됐어요, 이제는 본연의 삶에 대해 생각해 봐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해요, 나아가야 해요, 당신과 함께 가고 싶어요.”라는 내용에서 학문적 동반자로서 미래의 삶을 진화시키는 의지로도 들리고, 에블린과 월이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장면을 떠올리면 또한 함께 편한 안식을 취하자는 의미로도 읽힌다.

〈트랜센던스〉는 피조물의 인간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서, 미치광이 과학자와 피조물의 설정을 새롭게 재인식하게 만든다. 인간인 척 에블린의 ‘추억’에 기대고, 나노 생체 기계를 통해 ‘인간의 형상’을 만들어내며, 인류의 행복을 위해 생명공학 지식을 구체적인 나노 생체 기계로 만들어내는 월의 ‘자율적 의지’를 맥스는 의심한다. 양자 프로세스를 훔쳐서 비밀 실험실에서 월의 뇌를 업로딩하고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일련의 창조적 작업에 에블린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뿐

더러, 월의 죽음을 부정하고 그의 새로운 인공 지능을 월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 역시 에블린이다. 맥스가 생각할 때, 월이 디지털 존재가 되는 과정에서 빅터 프랑켄슈타인처럼 에블린이 월의 창조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치광이 과학자는 월이 아니라 에블린인 것이다. 맥스가 자신은 인공지능이 된 월을 한번도 실제의 월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할 때에, 지식과 사유의 진보를 통해 나노 기계를 만들어 인류의 삶을 구원하고자 하는 월의 의지, 존재 이유는 사실은 에블린의 의지가 디지털화, 코드화된 것이다. 빅터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FINN을 만든 소스코드를 왜곡하여 바이러스를 만들고 그것을 월에게 전달하기 위해 에블린은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한다. 앞서 『프랑켄슈타인』서도 창조자의 피조물에 대한 살해는 인류 종말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에블린의 시도는 에블린과 함께 죽기로 결심하는 월의 선택을 통해 성공하고 두 사람은 함께 죽음을 맞이한다.

〈트랜센던스〉는 지식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그것을 통해 새롭게 등장하는 ‘인간 종’ 그리고 그 존재의 비극을 통해, 인간 진화의 욕망과 종말의 공포를 만들어내고 있다. ‘초월’이라는 제목에서처럼 어찌면 이 영화는 단순한 생물학적인 존재 상태에서의 진화만이 아니라, 유기체와 무기체의 경계를 넘어서까지 상호소통하는 새로운 ‘존재론’ 혹은 ‘우주론’을 우리 시대의 과학지식을 통해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자아의 경계, 신체의 경계, 윤리적 책임의 경계, 자아 정체성, 자아 내부와 외부의 경계 등 포스트 휴먼의 탈경계성²³⁾과 비극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의 ‘인간’과 지식에 대한 사유를 담아내고 있다.

23) 마정미, 『포스트휴먼과 탈근대적 주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서문 참조.

4. 결론: 인간 이후의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상의 논의에서, 사이언스 픽션 속 인간 진화의 상상력은 과학 지식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종의 가능성을 플랫폼화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인간 진화’는 단순한 생물학적 사실이 아니라, 현대 사회 환경과 기계 문명의 변화 속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중요한 ‘상상력’이면서 ‘지식’으로 기능하고 있고, ‘자연선택’과 ‘적자생존’과 같은 진화론의 전제들은 각각의 문화적 역사적 과학적 맥락에 따라 새로운 관점과 논리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랑켄슈타인』과 〈트랜센던스〉에 속에 재현된 인간 진화의 상상력은 생물학적 진실이기에 앞서 불멸을 꿈꾸는 인간의 욕망을 내포한 상상력이고, 과학문명 시대에 내재된 비극적 사유라고 말할 수 있다. 불멸을 원하며 새로운 인간 종으로 진화하려는 인간의 욕망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꿈이면서 현실화될 수 있는 미래의 욕망이 되었다.

19세기 초 자연과학의 진보와 생명 진화에 대한 상상력을 소설화한 『프랑켄슈타인』의 비관론은 당대 계몽주의적 인간관과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기본으로 한다면, 21세기 디지털 환경과 나노 기술 문명 속에서 인간 정신의 디지털화, 탈신체화를 꿈꾸는 〈트랜센던스〉는 과학기술에 대한 두려움과 종말에 대한 공포를 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새로운 종(트랜스휴먼)으로 인간이 진화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두 작품 속에서도 드러나듯 욕망하는 데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환경적 조건과 변수 속에서 인간이 파멸할 수도 있다는 예측과 비극적 전망을 버릴 수는 없다. 『프랑켄슈타인』과 〈트랜센던스〉에 대한 이해는 허구적 가능성과 현실의 불가능성 사이에 존재하는 ‘인간 종의

존재론적 아이러니를 잘 보여주고 있다.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인간의 정체성과 그 존재 양식의 변화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인문학적인 성찰이 필요한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인간 이후의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앞에 두고서, 앞서의 사이언스 픽션에 대한 논의들을 통해 인간 진화의 가능성과 비극성을 공유하고, 기술문명이 만들어내는 ‘포스트 휴먼’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가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본 논문이 본격적으로 한국의 사이언스 픽션 작품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21세기 한국 문학 속 사이언스 픽션의 가능성을 열어 둔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를 갖는다. 알폰소 쿠아론의 <그래비티>(2013)와 크리스토퍼 놀란의 <인터스텔라>(2014)가 한국 내에서 크게 흥행하고 있다는 점은 사이언스 픽션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예이다. 그리고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지난 10월 26일부터 5일간 SF2014를 개최하며 우리나라 최초로 SF어워드를 신설하고 다양한 분야의 수상자를 선정하기에 이르렀다.²⁴⁾ 이러한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본 논문이 연구하고 있는 사이언스 픽션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지적 성찰은 한국 사이언스 픽션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 믿는다.

24) <해럴드 신문>, 2014.9.20. 일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920000085&md=20140923004456_BL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메리설리, 『프랑켄슈타인』, 문학동네, 2008.

영화 〈트랜센던스〉, 2014.

2. 논문과 단행본

고장원, 『세계과학소설사』, 채륜, 2008, 39-40쪽.

김성곤, 『경계를 넘어서는 문학』, 민음사, 2013, 228쪽.

김연순, 『기계인간에서 사이버휴먼으로』,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139-140쪽.

마정미, 『포스트휴먼과 탈근대적 주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서문 참조.

승현준, 『커넥토피아, 뇌의 지도』, 김영사, 2014, 430쪽.

신상규, 『호모 사피엔스의 미래』, 아카넷, 2014.

이화인문과학원 편, 『인간과 포스트휴머니즘』,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3, 170쪽.

도미니크 바벵, 양영란 역, 『포스트휴먼과의 만남』, 궁리, 2007.

로버트 스킨 & 에릭 랩킨, 『SF의 이해』, 평민사, 1993, 17쪽.

브라이언 보이드, 『이야기의 기원: 인간은 왜 스토리텔링에 탐닉하는가?』, 휴머니스트, 2013, 537쪽.

샬로테 케르니 역, 『판타스틱6』, 위즈덤피플, 2011, 251쪽.

질리언 비어, 『다윈의 플롯』, 휴머니스트, 2008.

찰스 다윈, 송철용 옮김, 『종의 기원』, 동서문화사, 2013, 4-5쪽.

캐서린 헤일스, 허진 역,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플래닛, 2013.

Eric S. Rabkin and Carl P. Simon, "Age, Sex, and Evolution in the Science Fiction Marketplace." *Interdisciplinary Literary Studies* 2,2(2001): 45-58. JSTOR. Web. 6Dec. 2012. 참조

Denis Dutton, *The Art Instinct: Beauty, Pleasure, and Human Evolution*, Bloomsbury Press, 2009.

Brian Boyd, Joseph Carroll, and Jonathan Gottschall, *Evolution Literature & Film: A Reader*,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0.

Joseph Carroll, *Literary Darwinism*, Routledge, 2004.

George Levine, *Darwin and the Novelists: Patterns of Science in Victorian Fic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참고사이트 <http://www.umich.edu/~genreevo/>

Abstract

A Birth of new human species and the evolutionary imagination

Oh, Youn-Ho (Ewha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takes a close look at *Frankenstein*, a science fiction written in the early modern era by Mary Shelley, and *Transcendence*, a 21st century film directed by Wally Pfister, to identify how scientific knowledge is utilized to create new human species in the cultural context. Also, the study identifies and analyzes changes in evolutionary imaginations stemming from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and scientific knowledge ranging from evolutionary theory to quantum dynamics and nanotechnology. In this study, the author attempted to take a fresh approach to science fiction to reach a conclusion that cultural plots that cut across the fields of science and fiction are not always fake and fictional but can be reasonable and futuristic. Through this observation and analysis, the author tries to present a new vision for anthropology based on humanities in the 21st century.

Human evolution in this context does not merely mean biological evolution. Evolution functions as imagination and knowledge that are important to understand humanity amid rapid changes in our society and technology. The concepts of natural selection and survival of the fittest that underpin evolutionary theory take new perspectives and logics depending on cultural, historical and scientific contexts.

Human evolution illustrated in *Frankenstein* and *Transcendence* may be the realization of human desires for immortality and tragic nature that is intrinsic in science and technology. Evolving into immortal beings has been the longest dream of mankind. Now, it has become a possibility that may come true in the future.

(keywords: Frankenstein, Human Evolution, Transcendence, Science Knowledge, Human species, Transhumanism.)

■ 위 논문은 2014년 10월 30일 투고되었고, 심사를 거쳐 11월 30일 게재가 확정되었음.